

泽连斯基, 마이애미 종전협상 “실질적 결과 근접”

“20개항 구성 평화계획 논의…기본 문서 모두 준비”

볼로디미르泽连斯基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 유럽과 진행한 종전 협상에 대해 “실질적 결과에 매우 근접했다”고 22일(현지시간)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泽连斯基 대통령은 이 날 자국 외교관들을 위한 모임에서 “모든 게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국의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실질적 결과에 매우 근접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미국 측이 제시한 20개항으로 이뤄

진 평화 계획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泽连斯基 대통령은 전했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20개항의 평화계획을 제안하자, 우크라이나는 20개항을 역제안했다. 수정안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요구, 전후 경제 재건 구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泽连斯基 대통령은 “모든 게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서의 기본 틀은 준비됐다. 기본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외교의 날 기념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泽连斯基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적인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 사안이 있다. 러시아 측도 준비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장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유럽 대표단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유크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리드 쿠슈너가 참여하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종전협상을 벌였다.

미국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과 별도 회담을 진행했다.

이후泽连斯基 대통령은 삼야 화상 연설에서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지, 공격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진정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크렘린궁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 인하, 강력한 국제 제재, 지속적인 기타 압박 조치가 고집 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올해 이미 러시아 전쟁 자금 조달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태국, 휴전회담 개최 발표 직후 공습 재개”

태국 “캄보디아가 먼저 로켓 쏴”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 상대국인 태국이 휴전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공습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전날 태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시엠레아프주와 프레아비헤아르주 일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시엠레아프주는 세계적 관광지인 ‘앙코르 와트’ 사원이 있는 곳이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양코르 와트 사원에서 차량으로 대략 1시간여 거리인 마을이 폭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한 회담을 오는 24일 국경 일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뒤 나왔다.

전날 양국을 포함한 아세안(ASEAN·동남아

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회의를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교전을 중단하고자 촉구했다.

반면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로켓으로 공격해 맞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국 국방부는 캄보디아 군이 전날 로켓 수십 발을 쏘고, 이에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 2곳을 공습했다고 맞섰다.

이처럼 휴전회담 개최 합의 발표 후에도 충돌은 계속됐지만 캄보디아 내부부는 태국이 휴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했다.

태국 국방부는 “(양국이 오는 24일에) 휴전 이행, 관련 절차, 겸증 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양국이) 가능한 한 빨리 휴전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미국도 이번 주 휴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영국서 바닷가재 산채로 삶으면 불법

영국이 동물복지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보수당에서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기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리스터션 컴퍼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고, 전기충격과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단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또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도 도입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아흐메다바드에서 힌두교 의류 노동자 디푸 찬드라 다스의 린치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려 비슈바 힌두 파리샤드(VHP) 활동가들이 방글라데시 국가와 인형에 불을 지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방글라 언론인들, 시위대 신문사 방화 규탄…“살해 위협도”

학생시위 지도자 사망에 분노

시위대, 최근 신문사 2곳 방화

방글라데시 언론인들이 최근 시위대가 저지른 신문사 건물 방화 행위를 규탄하고 시위대 측의 언론인 살해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고 AFP통신 등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 수십명이 전날 수도 다카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최근 발생한 폭력 시위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글라데시 편집인협회 등이 주관인

시위에서 플래카드를 든 채 인간띠를 형성하기도 했다.

시위에는 시민단체 회원과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당원들도 참가했다.

앞서 지난 18일 학생시위 지도자 사망에 분노한 시위대는 디카 소재 유력 언론사인 프로토알로와 데일리스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악탈을 감행했다.

이 시위는 지난해 세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를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학생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사리프 오스만 하디(32)가 사망한 날에 맞춰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하디는 이달 초 디카

에서 복면한 괴한 총에 머리를 맞아 싱가포르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숨을 거뒀다.

하시나는 무력진압에도 세력이 강해진 학생 시위대에 밀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8월 초 자신을 지지해온 인도로 돌아나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하시나의 추방을 거부하는 인도를 강력 비판해온 하디는 내년 2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의 사망 소식에 분노한 이들은 신문사 건물 등을 방화하고 악탈했다.

이들은 프로토알로와 데일리스타 등 신문사가 인도와 하시나를 편드는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신문사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